

2000년 밀레니엄 첫 해를 보내며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첫 해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뒤로 한 채 2000년도가 저물어간다.

일년 중 이때 쯤이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과 실행했던 일들이 차례로 생각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올해의 연

말을 맞는 기분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감회를 갖는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IMF에서도 벗어났으며, 경제도 되살아 나는 듯 했으나 불안정한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단결이 잘 되는 우리 국민들이기에 지혜롭게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좋은 일과 함께 어려움이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없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선들로 말미암아 이른바 인터넷 기업의 옥석 가리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상이라 우리로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첨단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 유도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멀티미디어 산업진흥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을 제정한 이래 올해로 7회째 시상을 했다. 또한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시스템 보안에 관하여 정부,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시행은 물론 「국제 인터넷 Trust Mark 워크샵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가전 분야에서도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 국제 워크샵」을 개최해 국제 표준에 관한 논의 등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올해 10회째인 「정보통신포럼」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무선 인터넷 기술발전을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무선 인터넷 사업 활성화 정책과 산·학·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제9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올 한해의 정보통신산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산업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터넷 방문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인터넷사이트 방문통계 인증 서비스」를 실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의 공정·정확·객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관련 기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0년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귀중한 한해였다. 더욱이 첨단기술개발 등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이 나라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협회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회원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